

‘청정전남 으뜸마을’ 활성화 나선다

도, 전문가 간담회...주민 참여 확산 논의 마을 경관 조성 추진 방향 등 의견 수렴도

전남도가 마을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존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정신을 회복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주민 참여 확산·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3천개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마을 당 매년 300만원 씩 3년간 총 900만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70억원(도비 108억원, 시·군비 162억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 완도 울포마을은 방파제 섬터·야간 조명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 호평을 얻고 있다.

또 보성 영천마을은 특산물용 활용한 녹차 가로수길을 조성해 마을 자긍심을

높였다. 곡성 유평마을은 버려질뻔한 옛날 물건을 모아 마을 박물관을 조성, 마을 역사를 담아냈다.

해남 신평마을은 화분마다 이름표를 붙인 장미 거리를 조성해 주민 참여를 독려했고 마을축제를 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우수 사례 확산, 주민 참여 증대를 위해 최근 분야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으뜸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사업 완료 이후 사후 관리, 주민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마을경관, 마을관광 분야 전문가인 으뜸마을 평가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회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생활의 제를 찾음으로써 주민자치 경험을 쌓는 소중한 사업이기에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례 매뉴얼을 통해 사업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전문가단을 구성해 시·군 담당자와 으뜸마을에 찾아가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업 동기 부여를 위한 마을대표·담당자 대상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으뜸마을 사업이 마을 자치를 실현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토대가 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령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마을은 자생단체, 인근마을, 기업체,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간에서도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해 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0+세대(만 50-64세·베이비부머 세대)로 구성된 단체가 재능 기부로 마을 가꾸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을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마을의 잠재된 문화적 요소와 경관자원을 이야기로 구현해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구성하자는 게 골자다. 소설 속 등장하는 마을관광코스, 자연경관형·역사문화형 둘레길, 주민 가이드 마을투어 등을 사례로 꼽았다.

김규용 자치행정과장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토대로 추진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이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도민 참여 확대, 사업 완성도 제고 방안을 검토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마을자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9월 시·군 담당자, 마을대표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까지 우수 사례지를 평가한 후 11월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수 6개 시·군 및 50개 으뜸마을을 선정, 12월 시상과 함께 성과나눔대회를 열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여름철 야생버섯 중독사고 주의하세요”

도산림자원연구소, ‘독버섯 바로알기’ 앱 활용 확인 당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여름철 야생버섯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무분별한 채집·섭취로 중독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 자문이나 ‘독버섯 바로알기’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는 1천9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식용이 가능한 버섯은 약 400여종으로 2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야생 독버섯 섭취에 따른 사고가 7월부터 10월 사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7월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중독사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식용버섯과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겉모습을 보고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와 잘못된 독버섯 상식에 따른 사고가 가장 빈번하다.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색이 화려한 것은 독버섯이고 하얀 것은 식용버섯 ▲버섯이 세로로 찢어지면 식용버섯 ▲별레가 먹은 것은 식용버섯 등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독버섯인 마귀광대버섯(왼쪽)과 독우산광대버섯.

일반인이 겉모습만 보고 버섯의 독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식용 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꼭 섭취 전 전문가 자문이나, 국립수목원에서 만든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등산객과 캠핑객 증가로 독버섯 중독사고가 늘고 있다. 최근 영암에서는 산에서 캐온 버섯을 먹은 외국인 3명이 중독 증상을 보여 병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독실 소장은 “야생버섯은 되도록 채취를 삼가고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토 등과 같은 중독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섭취한 버섯을 들고 병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국 자매도시인 샌안토니오시의 론 니렌버그 시장과 화상을 통해 양 도시 간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美 샌안토니오와 첨단산업 협력 기대”

시장, 자매결연 40주년 론 니렌버그 시장과 화상회의

광주시가 미국 샌안토니오와 문화·예술을 뛰어넘어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미국 샌안토니오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시청에서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 시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양 도시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1982년 자매결연한 광주와 샌안토니오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인적 교류 물꼬를 트는 등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화합과 우정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공공예술 선도도시 샌안토니오는 문화와 예술을 뛰어넘어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교류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 광주와 사이버보안 대표 도시 샌안토니오가 함께 첨단산업 파트너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달 열리는 샌안토니오 세계유산축제의 메인 주제가 광주다. 광주시는 샌안토니오에서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시립미술관 전시를 열고 광주 대표 요리사가 현지에서 광주의 맛

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시립교향악단의 연주 공연과 더불어 두 도시의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 시장은 “광주는 지난 40년을 넘어 앞으로 함께 성장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자매결연 40주년을 계기로 시민들도 두 도시에 대해 잘 알고 서로 더욱 친밀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니렌버그 시장은 “앞으로 문화와 예술을 넘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선강기자

전남도, 추석 대비 ASF 방지 총력

거점 소독시설 22개소 운영 연휴 전후 방역활동

전남도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과 주변 일제소독, 방역수칙 집중 홍보 등 추석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강원도 양구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한 데다, 추석연휴 귀성객 등 사람 이동이 많아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국내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도 양돈장에서 5월과, 8월 2건 발생했다.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장거리로 전파되는 양상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 이동이 많아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소독, 축산 관계자와 귀성객 방역수칙 준수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거점 소독시설 22개소를 운영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소독한다. 또한 추석 연휴 전후인 9월8일과 1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양돈농장,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소독할 계획이다.

농장 종사자 입산 자제, 농장 내외부 철저한 소독, 귀성객 양돈농장 방문 자제 등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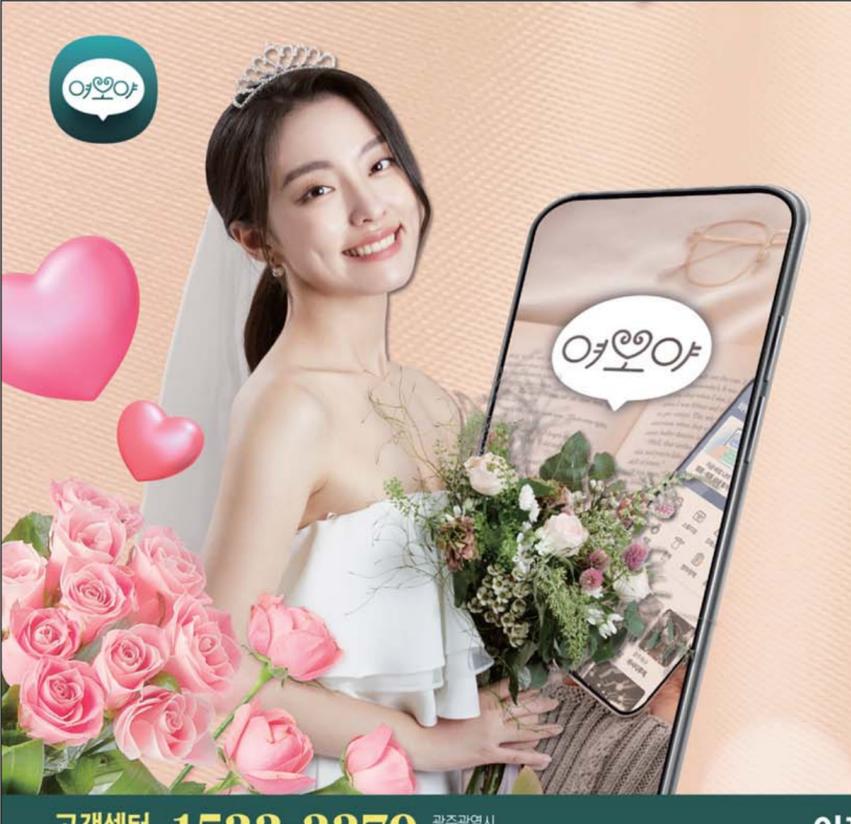
전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비사업 127억원, 자체사업 40억원 등 총 167억원을 확보해 양돈농장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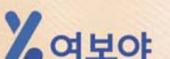
양돈장 방역시설은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는 농장 차단 방역시설이다.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8대 시설이 있다.

현재 전남 양돈농가 중 43%가 설치했고 연말까지 모든 양돈장 설치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

전도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청정 전남을 유지하기 위해 양돈농가는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실천하고 귀성객은 축산농장 방문금지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발생 이후 양돈농장에서 23건이 발생하고 야생 멧돼지에서 2천655건이 검출됐으나 전남지역 발생은 아직 없다. /김재정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